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적 금융그룹 될 것”

JB금융그룹, 3분기 누적 순이익 2855억원 시현 ROE 11.1%·ROA 0.8%의 양호한 수익성 지표 달성 여신비율 0.92%·연체율 0.93% 안정적 추세 유지

JB금융지주(김한 회장)는 최근 2018년 3분기 연결 누적기준 2,855억원(지배지분 2,1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8.2%(지배지분 23.5%) 증가한 실적으로, 2018년도 연간 가이드선으로 제시했던 2,880억원 수준에 근접(지배지분 가이드선은 2,083억원으로 초과 달성)했다. 지주 설립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다각화, 시너지 확대 효과가 실적에 반

영되면서 각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계열사들의 견실한 이익성장으로 그룹의 균형 있는 수익 포트폴리오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전북은행(별도기준)은 전년동기대비 51.4% 증가한 873억원의 누적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 그룹의 높은 이익 증가세를 견인했다. 또한, 광주은행(별도기준)과 JB우리카페(별도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7%, 13.4% 증가한 1,414억원으로 686억원의 누적 기

준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순이익 증가의 주요 요인은 순이자마진의 차별화된 상승, 대손비용의 하향 안정화, 그룹의 핵심이익 기반이 한층 견고해진 것에 기인한다. 이는 그룹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산성장의 한시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그룹의 전략이 주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교환을 통한 광주은행의 100% 완전자회사 편입과 더불어 2019년에도 그룹의 긍정적인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로는 3분기 지배지분 ROE 11.1% 및 그룹 연결 ROA 0.8%의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했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추진으로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92%, 연체율은 0.93% 및 대손비용율(누적 은행 기준)은 0.30%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룹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자본비율,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중심의 자본비율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며 따라 3분기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Ratio)은 연결기준 9.02%(잠정)를 달성, 전분기 대비 0.12%p 및 전년동기대비 0.44%p 큰 폭으로 개선됐다. 향후, 광주은행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이익 확대, 내부등급법 전환 예정에 따른 기대효과까지 감안하면 자본부담 우려를 해소, 2019년도부터는 강화된 자본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 성장궤도로의 진입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은행의 이익이 4분기부터 그룹 실적에 100% 반영되면서 그룹의 수익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축적한 경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Digital 금융’ 등 그룹 중장기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업무추진을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적 금융그룹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외화정기예금 ‘상상플러스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비대면채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 전북은행 비대면 외화정기예금 상상플러스(+) 이벤트를 오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북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 뉴스마트뱅킹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동안 개인 고객이 전북은행 인터넷뱅킹, 뉴스마트뱅킹을 통해 미달러(USD) 외화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금액이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이면 계좌 신규 시에 9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뉴스마트뱅킹에서 미화 1,000불 이상 미달러(USD)로 외화정기예금을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 한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가족의 날’ 행사성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문건설가족의 날’ 행사를 열었다.

김태경 회장은 “회원사 수주물량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태경 회장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시공사와 전문건설협회 가 함께 지역전문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수주 강화를 위해 전북도에 건설지원팀을 신설, 하도급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며, “전주시에서도 내년 1월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을 공식화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전문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단합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맥시칸치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닭강정 세트’ 출시

맥시칸치킨(대표이사 문경필)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닭강정 세트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맥시칸치킨은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 기업인 (주)하림의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닭강정의 진리, ‘해자(양이 많다) 치킨’이라고 불리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맥시칸치킨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닭강정 세트 메뉴인 ‘키즈맘세트(순살닭강정+키즈닭강정)’, ‘키즈빠세트(매콤닭강정+키즈닭강정)’, ‘닭강정 반반세트(순살닭강정+매콤닭강정)’ 등 3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키즈맘세트는 매운걸 싫어하는 소비자나, 일반 닭강정이 매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이며, 매콤한 맛을 즐기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먹을 땐 키즈빠세트가 적합하다.

또한 반반 섞어 가며 질리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닭강정 반반세트도 함께 마련돼 있어 온 가족의 다양한 입맛에 맞춰 닭강정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맥시칸치킨 관계자는 “맛있는 닭강정을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닭강정 세트 메뉴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오랜 3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맥시칸치킨은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맥시칸치킨은 지난 4월 ‘엄마의 정성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기반으로 어린이 전용 메뉴 ‘키즈 닭강정’을 출시한 바 있다. 닭강정 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들의 상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농협, 국내산 축산물 우수성 널리 알린다

소비자 초청 축산현장 체험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난 2일 소비자들에게 축산 현장을 직접 보여줘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나눔축산운동본회의 일환인 ‘소비자 초청 및 축산현장 견학·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촌사랑봉사단 여성회원 43명을 초청, 임실축협 지원화센터, 섬유질사료공장, EM공장, 가축시

장 등 축산 현장을 견학, 임실치즈농협에서는 치즈, 요구르트 등 낙농제품 생산과정을 살폈으며, 임실치즈마을에서는 치즈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도 열었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축산농가와 농협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사를 통해 한우, 한돈 등 우리나라 축산물의 우수성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축산물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자랑스러운 전북농협 임직원들 수상 축하합니다”

중앙본부 정례조회서 다수의 상 뿜뿜이 쾌거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일 중앙본부 정례조회에서 전북의 범농협 임직원이 자랑스러운 조합장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에는 부안중앙농협의 신순식 조합장, 지도사업우수농협에는 장계농협(조합장 박봉화),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 축산경제대상은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계통사료판매상

성탑에는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지부장상에는 이문식 고창군지부장이 수상했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과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은 지도사업우수농협으로 선정됐으나 2분기 기 수상으로 금차 시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특별사업추진우수에 익산농협 심옥희 계장보, 동계농협 박강철 과장대리, 숨은일꾼상

에는 양곡자재반의 이철오 차장, 축산발전유공은 축산사업단의 소섭 차장이 수상, 전북농협의 명예를 높였다. 유재도 본부장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다수의 상 수상에 수상자와 전북의 임직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 임직원은 더욱 더 노력하여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심혈을 기울이지”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